

# 서울대의 사명

: 창의적 교육으로 Saving Korea

일시 | 2022년 10월 14일 3시~5시

장소 | 관정도서관 3층 양두석홀

## | 초대 말씀 |

한때 역사상 유례없던 고속 경제성장을 구가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30년 넘게 추락해 온 결과 이제 제로 성장의 빙하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멈추고 청년들의 취업절벽과 실업 문제가 더욱 극심해지면서 연간성장률 마이너스의 역성장 위기도 2년에 한 번꼴로 겪어야만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습니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남들보다 먼저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디어 무한 경쟁시대’가 이미 오래전 도래했음에도 우리 교육시스템은 아직도 남이 만든 지식을 외워 익히는 모방형 교육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정점에 있는 우리 서울대도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 서울대부터 앞장서서 나라를 살릴 창조적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창의성 교육을 통해 창조적 인재로 거듭난 우리 학생들이 분출해내는 독창적 아이디어들을 이용해 고도성장을 회복하고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것이 지금 서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서울대의 이러한 노력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더욱 효과가 증폭될 것입니다. 서울대의 이러한 소명에 공감한 저희 <창의성 교육을 위한 서울대 교수 모임>의 교수들은 2016년 모임이 만들어진 이래 공동저서 ‘창의 혁명’의 발간과 세미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창의성 교육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저희 교수 모임 차원의 작은 영역을 넘어서 대학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창의성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서울대 학생들에게 나라를 살릴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고안해 낼 능력을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서울대 교수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교수님의 명철한 지혜와 혜안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성 교육을 위한 서울대 교수 모임

회장 권오남

## | 프로그램 |

| 사회: 나용수 교수(공과대학) |   |
|------------------|---|
| 3:00~3:10        | 인사 말씀   |
| 3:10~3:40        | 김세직 교수(사회과학대) 기조강연: 위기의 한국 경제와 서울대의 역할              |
| 3:40~3:50        | 김성우 교수(공학전문대학원) 발제 1: 상한없는 서울대 교육을 위한 제언            |
| 3:50~4:00        | 권오남 교수(사범대학) 발제 2: 창의성 교육을 위한 강의평가 제언               |
| 4:00~4:10        | Break   |
| 4:10-5:00        | <b>패널토론</b> [좌장: 황농문 교수(공과대학) 서울대 창의성 교육의 비전과 실행방안] |
|                  | 남익현 교수(경영대)   |
|                  | 유홍림 교수(사회과학대)                                       |
|                  | 이철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                  | 차상균 교수(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
| 5:00             | 폐회  |

주최: 서울대 창의성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